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4호 [루체 제23146호] 주제99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며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4대선행부문이 기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비
약의 진격로가 활짝 열려질수
있으며 모든 경제부문에서 대
교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습니다.』

인민경제선행부문이 총공세의 앞장에서 전진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
며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터울리고 있는 인민경
제부문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습니다.』

하고 있다.
순천지구의 천성청년란팡,
신창청년란팡, 혁랑란팡, 혁
천지구의 청남, 남양, 덕성,
덕천, 서창청년란팡 등 모든
란팡들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고 최근년간
에 있어 본격적인 높은 생산
실적이 기록되고 있다.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전국고
속도로 길 및 궁전소대들사이
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경
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짚고 들어 탄광들에
서 확보한량을 늘리고 새 생
생 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
을 계속화하고 있다.

서 계속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
고 있다. 발전소의 전력생산자
들은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면
서 교대당 매일 전력생산을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 있
다. 이와 함께 설비들의 안전
성을 보장하고 운영효률을 높
이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 있다.

3호발전소에서는 해당 기관
의 긴밀한 협력과 기계식
조속기를 전기식조속기로 개조
하는 등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
가면서 기술개선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있다.

부문에서

구의 탄부들이 서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일꾼들과 탄부들은
서로 큰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상반년기간에 석탄공업부문의
탄부들은 지구에 탄광을

하고 있다.
개천지구와 탄부들이 생산조건을
석탄으로 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석탄생
산을 늘리고 있다. 협력기업소
에서는 계속 혁신을 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지 굴
진 소대들에서 창조되고 있는
우수한 기술혁신성과들을 제
속하고 끝 궁전소대들사이
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경
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짚고 들어 탄광들에
서 확보한량을 늘리고 새 생
생 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
을 계속화하고 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여하고 있다. 언제 직장의 로동
자들도 권리기능을 비롯한 서비스
들의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한방울의 물도 새
여 나가지 않게 언제 보강작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전기직장의 로동자들은 자
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여 발
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소재원
전을 탐구동원함으로써 발전
설비운영과 보수에 필요한 부
속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
고 있다.

지금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
은 뜻깊은 울ة를 높은 전력생
산성과로 빛내기 위해 총력전
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공로혁

석탄공업

당대 표자회를 빛나는 로열적
성과로 맞이하려는 각지 탄부
들의 충성의 열도는 석탄생산
에서 보다 큰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상반년기간에 석탄공업
부문의 탄광들에서는 지구에
같은 기간보다 석탄생산실적을
1. 2배로 높이었으며 많은
예비재 탄장을 마련하였다. 그
기세를 조금도 높이지 없이 각
지의 탄부들은 이달에 들어와
서도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
록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
들에서는 높은 증진성과로 당
대 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꾼들과 탄부
들을 조직동원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
제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
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짚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지휘일
군들은 화려발전소석탄보장에

위 대 한 당 을 따 라 총 진 군 앞 으 로 !

우리는 머지 않아 성스러운 조선로 동당 혁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길이 빛날 당대 표자회를 맞이하게 된다.

순간을 살아도 향도의 당을 위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의 충직한 당원들과 군인들, 청년들 모두가 환희와 격정에 넘쳐 영광의 그날을 기다린다.

조선로동당대 표자회.

우리 당의 평도적 권위가 힘 있게 파서되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가 온 누리에 차넘치는 경이적인 시기에 열리게 되는 것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의 가슴은 용암처럼 끓고 있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의 마음과 마음이 승리자의 대 축전장으로 풀 달을 치고 있기에 조선로동당대 표자회는 자랑한 승리자들의 대회 앞으로 성대히 경축될 것이다.

한 송이 꽃에도 그 즐거와 잎새를 자세 우는 뿐이다.

불며 천민송이 꽃들이 만발한 화원의 뿌리를 어찌 다 해아리라.

그 무수한 뿌리를 다 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조선로동당원들을 신념의 강자, 투쟁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들로 키워 내세워주는 은혜로운 삶의 품을 어떻게 다 칭송할 수 있으랴.

천만의 대오가 무한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조선로당!

이는 시대를 밟는 승리이며 주체혁명의 궁지높은 파기와 빛나는 오늘, 희망찬 폐일을 펴줄기처럼 잊고 있는 생명선이며 수백만 당원들의 심장을 충정으로 놀뛰며 하는 냇이다.

충실했던 당원들이 있어 령도자인 권리가 빛나고 당의 위력이 파사된다.

우리 당의 뿌리가 내린 저 멀리 《ㄷ. ㄷ》 시절부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제 1 선을 믿음직하게 모시고 수령에 대로 방침을 다듬어 모시고 수령에 대로 방침을 어떻게 판찰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우리 당의 첫 세대 당원들이다.

애 오라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토심을 암고 다진 맹세를 죽여서도 벽지 않으려는 불굴의 혁명정신이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의 그들의 참된 모습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원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파 수령을 겸경히 응호보위하는 전위투사가 되어야 하며 성세가 되고 밤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불멸한 이름들앞에 자기의 세워 보면 꽃나니 청춘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바친 혈렬혁명가들의 한생과 더불어 당원의 진정한 정묘와 자질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진리를 사무치게 절감하게 되지 않는가.

당원, 이는 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값높은 영예, 시대에 안겨주는 호칭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호칭이다.

우리 당의 첫 당원들, 혁명혁명이 낳은 수많은 전위투사들은 혁명

가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예가 무엇인가를 실증한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혈렬총신들이다.

김혁, 차광수, 최창경...

이름만 불러보아도 직위와 명예로 가 아니라 순결한 향상과 의리로 태양을 따르는 길에 일편단심 충정을 다한 혁명가의 군상으로 우리의 눈앞에 얼마나 삼삼히 어려오는 모습들인가.

바로 이들이 성스러운 조선혁명 사에서 처음으로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는 숭고한 혁사적 사명을 다한 우리 당의 전위투사들이다.

반반년 우리 민족사가 그처럼 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 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진정한 단결의 시원을 염려놓은 참다운 선구자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의 투쟁속에서 수령님은 곧이데 몸으로 수령님을 그려며 최고사령부를 찾아가 이긴다는 신념으로 쏘여 승리한 것처럼 최고사령부를 그리는 노래를 부르며 싸워이기며 하여야 한다!

그이의 정열적인 령도의 자욱자욱에 어버이수령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땅에 수많은 『신포향』들이 나와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얹세게 끌어가기를 바라시는 숭고한 위치가 빛날 수 않은 『안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숭고한 의지로 강성대국건설전사와 더불어 그 이를 길이 빛날 수 않은 『안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숭고한 신념으로 헌신과 굳건하고 궁지높은 역사가 어떻게 편면히 계승되는가를 실증하는 혁사적 장거리를 넘기고자 한다.

신군혁명위업의 전위투사인 조선

로동당원의 정표는 명실공히 혁명

성이다.

조선로동당원, 그 부름이 가장

값높게 불리우는 것은 당원들의 삶

이 평생으로 일관되여 있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달아 당정

책판월에 산악같이 불러일으켜야

한 선군의 신념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이런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조선로동당원들의

고유한 정신세이다.

탁원땅이 넓은 당원 신포향영웅

은 언제나 승리의 신십과 탁원에 넘

쳐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향하여 투

진하는 우리의 대오에 함께 서 있다.

아버지수령님께 복구전설은 걱정

이 지난 해방전쟁에서 인민군용

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작전적의도

를 받들고 하루밤사이에 수백리밖

의 마지막각에 남긴 부탁은 오늘

도 우리 당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수령님께 말씀드린대로 복구전설

에 참가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제일

한이에요. 정말 한이에요, 내가

죽으면 당원증을 당에 바칠 때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책,

수뇌부결사옹위의 역사를 궁지높이 이어가는 것으로 하여 더욱 광휘롭게 빛난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 가면 누구나 피묻은 당원증들앞에서 숭엄한 경계에 훑어나가게 된다.

생명의 마지막순간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해달라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우리 결을 떠나간 안양해영웅,

1950년대에 수령님을 그려낸 군인들과 인민들이 지니었던 충실히 이 새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령님을 그려낸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해달라는 고마운 동해주시는 것이다.

그이의 정열적인 령도의 자욱자욱에 어버이수령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땅에 수많은 『신포향』들이 나와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얹세게 끌어가기를 바라시는 숭고한 위치가 빛날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숭고한 신념으로 헌신과 굳건하고 궁지높은 역사가 어떻게 편면히 계승되는가를 실증하는 혁사적 장거리를 넘기고자 한다.

고생은 남 먼저 하고 락은 뒤로 미루며 바늘방식에는 자기가, 꽃방식에는 다른 사람을 앓히는 사람이 진짜 배기 당원이다.

누가 시켜서 하고 남이 된다고 하여 같이 쉬어 어렵고 힘든 일을 내리고 보수를 바라는 사람은 참된 당원의 영에 풀 빚내일 수 없다.

선봉적역 할은 당원들의 사상을 겸종하는 기본적도이다.

총포탄이 작렬하는 고지에 남먼저 저승의 기발을 끊어야 할 사람도 당원이 되어 할 사람도 당원이 되고 시원하고 고마운 일은 당원이다.

봉모와의 짙은 풋발로 위험에 있어서 류례없는 조선로동당원의 비범성은 존엄한 혁명의 길에서 당의

비로소 전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반드시는 것이다.

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신천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아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을 풀기고자 한다.

우리 당원들은 당원증을 빙의하고

당원들이 당원증을 빙의하고

당원들은 당원증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쓸로써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

조선로동당대표

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안악군의 협동에 보답의 열정이 넘쳐난다.

한평생 우리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투철을 걸고 걸으신 어버이 수령님의 해빛 같은 미소를 그리며 영광의 땅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당창건 65돐을 맞는 깊은 유헤에 기어이 풍요로운 가을을 안아옴으로써 수령님의 유훈을 이땅에 활짝 풀피울 하나님의 의지와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수령님의 유훈의 빛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 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새길 헌하고 있다니』

김매기가 시작되던 날 이른 새벽, 어려비리한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 우로 많은 오국리 사람들은 놀랐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품들여 주신 농장마을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지개벽이라고 한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우리 장군님.

그 위대한 사랑, 그 뜨거운 정성 속에 오국리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 오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세기면 새길수록 농장원들의 삶은 하나로 고동쳤다.

『쌀은 생산하는 것이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빙드는 길이고 강성

보답의 열정으로 불라는 대지

안 악 군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의 투 쟁

규격포전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국리의 건설주는 자신께서 되었다고 하시며 어버이 수령님께서 찾으시기를 그 열마였던가?

오국리농민들에게 사랑의 새집을 지어주고 새집들이하는 그날에는 몸소 찾아오시여 수목까지 틀어보시며 그리고

수수천년 내려오던 폐기는 그들을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전변시키주시고 물소, 오국리를 찾으시여 토지정리로 만들어 농작물비래판례에서 실적을 올리었다.

어려비리한 빛에 바라보시며 이런 것을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한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우리 장군님.

그 위대한 사랑, 그 뜨거운 정성 속에 오국리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 오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灭의 령도업적을 세기면 새길수록 농장원들의 삶은 하나로 고동쳤다.

『쌀은 생산하는 것이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빙드는 길이고 강성

대국건설을 앞당기는 길이다.

오국리사람들도 모두가 농작물비래판례에서 혁신을 일으킬 영의로 가슴을 뜨거웠다. 짧장마다 용솟음치는 뜨거운 열기는 그대로 포전에서 타율렸다.

온농장벌이 김매기, 비료처럼, 병해총파막이로 들꽃었다.

농장원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해 같은 그 사랑을 천년이 가고 만

년이 가도 있을수 없다며 심충비리를 할수 있는 기계들로 자체로 만들어 농작물비래판례에서 실적을 올리었다.

어찌하여 그 날이 흘렀다.

쌀로 우리 당을 받드는 선군

시대의 애국농민이 되자고 농작물비래판례에서 앞장서나

그리고 있는 경지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이들도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의 음을 암고 김매기에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농장원들은 포전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이론세벽이면 남먼저

포전에 나가 일손을 잡았다.

농장원들에서도 높이 말휘되었다.

김매기에서 높이 세운 그날

혁신을 일으켰다.

그러던 어느날 많은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전해졌다.

포전에서는 적극식 없는 모임이 열리었다. 농장일군의 불소리가 울려펴졌다.

『우리가 오늘의 투쟁에서 영에로운 승리자가 될 때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은 이 땅에 더욱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농장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농장원들은 짧은 기간에 물길가시기로 비롯하여 물풀피리를 막기 위한 전투를

끌었고 목표를 내세우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섰다.

긴장한 전투의 나날이 흘렀다. 물길의 끝곳에서는 밤에도 우등불이 타율렸고 물풀이 안겨준것이 있었으니 그 것은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이 땅에 활짝 풀피우려는

기여하여 농장에서는 며칠은 걸려야 한다면 물풀피리방지 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었다.

여전히 투쟁기풍은 통산, 엄포

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도 높이 말휘되었다.

본사기자 윤용호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포전을 드

지 않은 통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식물성 농

약을 적극 받아들이 병해총파막이에서 령일 실적을 올린

임의 월간이면 드넓은 포전이 들썩하게 오락회를 펼쳐놓고 새로운 희열과 활기로 넘쳐 혁신을 일으킨 안악농장의 농업근로자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감동된 군급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 가두인민반원들까지 포전으로

달겹게 달아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늘 때에 모임을 열어주시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의 투쟁에서 영에로운 승리자가 될 때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은 이 땅에 더욱 활짝 풀피우려는

기여하여 농장에서는 며칠은 걸려야 한다면 물풀피리방지 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다.

여전히 투쟁기풍은 통산, 엄포

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도 높이 말휘되었다.

본사기자 윤용호

강서구역

청산벌이 끝난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가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을 적극 받아들이 병해총파막이에서 령일 실적을 올린

임의 월간이면 드넓은 포전이

들썩하게 오락회를 펼쳐놓고 새로운 희열과 활기로 넘쳐 혁신을 일으킨 안악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제 3작업반원들이 아니었다.

꼭 오실 거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 = 180)

mp C Dm G7 C

1. 오늘도 그날처럼 - 우리를 찾으실 가 - 해
속는 등교길 -로 - 남면 저 탈려가 네 - 너
와나 가슴속의 - 그 소원 풀어주려 - 우
릴찾아 장군님은 꼭 오실거야 -

작사 류명호
작곡 김순화

2. 오시면 우리 노래 기쁘게 들으시며

전선길의 피로도 풀린다 웃으시리

따뜻이 안아키운 자식들 보고싶어

우릴 찾아 장군님은 꼭 오실거야

3. 오늘도 기다리네 탐구의 열정 속에

아버지 오실 그날을 그날을 기다리네

전선길 저 멀리로 꿈에도 달려가는

우릴 찾아 장군님은 꼭 오실거야

지난 5월 영
광의 대학을 또
다시 찾았습니다.

뜨거운 은정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합
동화공학대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언에 의하여 창
립되었으며 대학졸업생들이 학회공업부문을 비롯한 인
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많은 학제기술적 문제
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학
기술 분야를 개척하는데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는 분에 넘친 평가의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셨다.

『합동화공학대학은 지난 기간에도 나라의 학제
공업을 뛰어나갈 능력 있는 기술인력을 수립하기 위해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기여한 대학입니다.』

우리에게 대학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긍지에 넘쳐 이야기 하는 학장 한성일 동무의 목

학 흥 학
부 강조국건설에 기여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하고 있으며 실험실습의 정보화를 확장하여 전
체 학생들에게 교육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장군님께서는

높이고 있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하시면서 몇 해 사이에 많은 일을 한 교직원, 학생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실 때 일

군들은 솟구쳐 오르는 결정을

금할 수 없었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대학을 찾아주시고 후대 교육사업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사

인 것 만큼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응정을 베풀어 주신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와 그나마 온정이 있어 대학은 짧은 기간에 종합적 성격을 가진 공업대학의 체

모를 갖춘 대학으로 전변되었으며 수많은 최신식 교육

설비들로 교육사업과 실험

실습의 정보화를 향유 허

현하여 교육의 질제고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

었다. 과학연구사업을 활발

히 벌여 학제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제기되는 수많은 학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

의 은정속에 마련된 첨단설

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이 지식경제시대의 요

구에 맞게 실험실습토대와

과학연구사업을 그만 두고

기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대학은 대학으로

전환되었지만 학생들은

제대로 대학으로 전환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원격교육준비실에

서 그의 강의를 참관하였다.

전자칠판에 현시되는 수

학적 모형화, 여러 가지 기능

을 수행하는 빛펜을 이용하

여 교수를 노동하게 진행하는

강당 활동, 디자인 체험

활동을 통하여 강의를 받는

학생들의 미리운 모습들..

첨단 높이에 이른 교육수

준이었다. 준비실에서는 조

종수 김혜란 동무가 무선마

이크와 자동 활용기를 비롯

한 첨단 설비들을 이용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화상과 음

성 신호, 콤ью터에 협력

편집 풀들을 조종용 콤ью터에

입력시켜 강의를 실시간으

로 방영해 주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대형 액정텔레비전

수상기와 콤ью터 화면에 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받

아온 것 만도

분에 넘치는 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

느 한 녀성박사를 보시며

기가 작은데 사진을 찍을

때 가리울 수 있으니 앞으로

나오라고 정겹게 말씀하실 때 일

군들과 교원, 연구사

들은 가슴깊이 창点了

감격의 눈물을 끝내 터치고야 말

았다.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에 남기신 자자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위대한 사랑의 전설들로

수놓아졌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만나면서 평범한 한 너성연구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며

과학연구사업에서 꼭 성공하

라고 믿음과 고부의 말씀도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온 위훈을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함

통화공업대학은 인재가

많은 대학이라고 거듭거듭

놓은 모범 학생소

개관과 집필원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제기되는 수많은 학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

의 은정 속에 마련된 첨단설

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이 지식경제시대의 요

구에 맞게 실험실습토대와

과학연구사업을 그만 두고

기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원격교육준비실에

서 그의 강의를 참관하였다.

전자칠판에 현시되는 수

학적 모형화, 여러 가지 기능

을 수행하는 빛펜을 이용하

여 교수를 노동하게 진행하는

강당 활동, 디자인 체험

활동을 통하여 강의를 받는

학생들의 미리운 모습들..

첨단 높이에 이른 교육수

준이었다. 준비실에서는 조

종수 김혜란 동무가 무선마

이크와 자동 활용기를 비롯

한 첨단 설비들을 이용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화상과 음

성 신호, 콤ью터에 협력

편집 풀들을 조종용 콤ью터에

입력시켜 강의를 실시간으

로 방영해 주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대형 액정텔레비

션과 수상기와 콤ью터 화면에 현

에 넘쳐있는 이곳 교원, 연구사

들과 학생들의 불타는

열정과 내 조국땅에 보란

듯이 일떠설 교육강국, 이제

국의 레일을.

특파기자

치하를 주실 때 대학일군들

은 끝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들은 대학을 또다시 찾아

며 따뜻이 고마워해주시

며 기술교육의 휘황한 진로

를 밝혀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

장 뜨거운 감사 드리면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영원히

파를 신념의 맹세를 더

욱 굳게 다지었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만

나시였던 평범한 한 너성연구

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며

과학연구사업에서 꼭 성공하

라고 믿음과 고부의 말씀도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을

을 더 많이 기워내겠습니다.

이것은 학제화공업대학의 모든 교육

인민은 신념의 맹세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대학으로

온갖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교원, 연구사들은 차운이

나오라고 정겹게 말씀하실 때 일

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는 대학으로 준비된 유

능한 과학자, 기술자후비들

을 더 많이 기워내겠습니다.

이것은 학제화공업대학의 모든 교육

인민은 신념의 맹세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학제화공업대학의 모든 교육

인민은 신념의 맹세였다.

온갖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대학으로

온갖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대학으로

온갖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대학으로

온갖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6. 15 위업의 승리는 역사의 필연

오늘 6. 15 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내외반통일세력들의 행동은 그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그것은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집경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의지를 끌어 6. 15 위업을 말살하며 저들의 침략적아성을 이루기 위한 발악적 책동이다. 그러나 나, 내외반통일세력들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가치 높이 조국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장엄한 대행진을 가로막지 못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통일애국의 주체적력량은 북파 남 해외인 전민족적법위로 확대강화되고 더욱 굳게 결속되고 있으며 사대국적인 분별주의세력을 압도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전진하는 6. 15 통일시대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열망과의 차이는 더욱 뜨거워지고 굳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들의 현합성에서 다시금 청명무와 같이 시현파 난판, 우여곡절은 있어도 정의의 6. 15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위대한 선군의 해발아래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조국통일의 세기적승리를 기어이 성취하고자할것이다. 이것은 오늘 북남선인들의 진리성과 생명력을 실상으로 절감한 해내외의 거제의 한결같은 신념으로,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6. 15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확고한 의지이다.

인민대중의 정의의 위업이 승리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합법적 성이다. 6.

15위업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으로서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6. 15위업은 무엇보다도 새 세기 민족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불쾌의 생명력을 갖진다.

6. 15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6. 15 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사상정신

적원동력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평토와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합하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외세의 간섭이 없이 북파 남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여야 하며 또 그럴 때에만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6. 15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으로 북파 남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해나가는 투쟁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이자 6. 15위업의 생명력이다.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주체의 힘과 노력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어이 이룩하고자하는 해내외 온 민족의 드높은 정신력에 떠받들려 전진하는 6. 15통일시대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6. 15위업은 또한 조국통일에 사활적리해판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자신을 위한 위업인것으로 하여 펼칠 불쾌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에 사활적리해판계를 가지고 있다. 통일없이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에서 한파줄을 이으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6. 5년세

월이 흐르도록 분별의 비극을 계속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민족적 수치이다. 저자는 분별로 하여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고 긴장상태가 극도로 격화되어 우리 거제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을 겪고 있는 것도 비극중의 비극이다. 이제 외세와 그 주구들이 몰아오는 핵전쟁의 참화까지 들쓰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파악 어떻게 될것인가 하면은 것은 더 본의 할 여지가 없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이나 분별이나 하는 것은 글 사도나 죽느냐 하는 생생한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결단코 민족분열로 하여 당하는 고통과 불행, 재난의 역사 를 끝장내야 한다.

6. 15위업을 이룩하는가. 이룩하지 못하는가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오늘 해내외의 우리 거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북남선인들의 기치밑에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려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활로를 기어이 열어나갈 의지에 넘쳐있는 것은 당연한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만이 살길이다. 결사의 각오와 결단으로 민족의 살길, 조국통일의 길을 열자. 바로 이것이 6. 15통일시대에 사는 우리 민족의 환경같은 의지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떠나거나라는 우리 거제의 자각과 열의로부터 출발한 6. 15위업이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6. 15통일시대의 지난 10년간에 우리 거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진리성과 생명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반통일세력의 대결전쟁 등을 짓부시기 위한 적죽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 갈 때 6. 15위업의 종국적승리는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엄 일 규

꿈같은 현실을 펼치였다.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북파 남사회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들이 진행되으며 협력사업이 확대되었다. 민족분별사상 일찌기 없었던 이러한 사변적인 성과들을 통하여 우리 거제는 북남선인들을 철저히 리행해 나가는데 민족의 자주와 평화가 있고 통일과 번영이 있으며 밝은 미래가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기술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된 6. 15의 환희와 격정은 북남선인들을 결사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겨 올 의지를 복동아주고 있다.

지금 《천안》호침몰사건이라는 특대형반공화국도모약국을 꾸며내고 그것을 기획로 전대미문의 대결전쟁소동을 벌리고 있는 미령박제당의 무분별한 책동은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외세와의 《공조》로 6.

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민족을 회생시키는 대가로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전횡을 부지하려는 역도에 당하는 미령박제당의 철학을 안겨야 한다.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악랄해지면 질수록 우리 거제는 더욱 결경하고 완강한 투쟁을 6. 15위업을 교수하고 승리의 종착점까지 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신념은 미래를 보고 승리를 안아온다.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국운동은 신심에 넘치고 승리의 날은 앞당겨지고 있다. 해내외의 온 민족에게는 6. 15통일시대에 사는 우리 거제의 자각과 열의로부터 출발한 6. 15위업이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6. 15통일시대의 지난 10년간에 우리 거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진리성과 생명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반통일세력의 대결전쟁 등을 짓부시기 위한 적죽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 갈 때 6. 15위업의 종국적승리는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엄 일 규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투쟁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펼쳐준 6. 15북남공동선언이 제작되었던 그 날들을 돌이켜보는 지금 북파 남 해외의 온 거제의 가슴은 그나마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다.

민족의 태양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창송의 목소리, 통일에 대한 확신에 넘친 심장의 웨침들은 남녘땅 그 어디에서나 울려 나왔다.

통일련대의 성원으로 활동하는 한 제야인사는 여러 인사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벅차오름을 할수 없다. 그날의 평양상봉이 북남간의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끝장내고 통일의 시대를 열려고 했던 그의 의미가 크겠지만 그보다도 그의 정의를 통해 전정한 통일의 구성을 봐하고 조국통일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확신하게 된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뿐이 아닌 온 거제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언인적풍모를 접하게 된 서울의 한 로동자도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어제면 그리도 유연하시면서도 당당하고 겹쳐하시면서도 인자하시고 대법하시면서도 소박하실가. 어유있게 대화를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아! 톨일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무어경에 참기기도 했다.

시종 씩씩하고 자신만만하신 그분의 몸짓과 걸음걸이, 우렁한 육성, 활활하시면서도 통일 그리고 구체적이시며 비범하신 그분의 물포로 나만이 아니라 온 아남민중이 반해버렸다.

그렇듯 위대하신분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자는 자궁심을 깊이 간직하고 6. 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미련하나마 나의 힘을 강고 바치겠다.》

진정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려는 것은 남녘거제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은 그날의 감격과 환희, 그 정의를 통해 전정한 통일의 구성을 봐하고 조국통일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확신하게 된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뿐이 아닌 온 거제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비례로 그날에 끝내 주시고자 했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 그 정의를 통해 전정한 통일의 구성을 이르렀다. 김정일장군님은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그분만을 믿고 살기 바란다.》고 한 광주의 교원의 말속에도 통일을 위한 길에서 꼴지기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것은 남녘인민들의 고결한 마음을 읊을수 있다.

하기에 오늘도 남녘거제들은

통일에 대한 회망과 확신을 안겨준 그날의 감격과 환희,

신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

길에

장군님을 믿고 따르려는 것은 남녘거제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50여시간의 만남으로 50여년

분별의 한을 가셔버리게 해주셨으며 이남민중에게 통일에 대한 신념을 안겨주셨다.》고 쓴 한 언론인과 제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은 그날에 끝내 주시고자 했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 그 정의를 통해 전정한 통일의 구성을 이르렀다. 김정일장군님은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그분만을 믿고 살기 바란다.》고 한 광주의 교원의 말속에도 통일을 위한 길에서 꼴지기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것은 남녘인민들의 고결한 마음을 읊을수 있다.

하기에 오늘도 남녘거제들은

통일에 대한 회망과 확신을

안겨준 그날의 감격과 환희,

신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

길에

장군님을 믿고 따르려는 것은 남녘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